

numbers 제 65호



주요 내용

2020. 09.25

1. 이번 주 주제 : [택배 노동자 실태]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 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2. 1)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2)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3) 서울 시민, '올해 추석 이동 계획 없다' 73%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등의 비대면 문화가 급속히 확산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한가지 있다. 누군가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더 많은 노동을 하거나 더 많은 위험을 안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비대면의 삶은 누군가가 먹고 마실 것을 집으로 배달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책 결정을 하거나,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은 종종 이들의 존재를 생각 못한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필수 노동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이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3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배달 산업 급성장에 따른 배달 노동자들의 대형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우리가 누구의 죽음을 뗏가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택배 노동자들은 현재 주 6일 근무,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면서 2분 50초 마다 1개의 물량을 처리하는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 점심은 거를 때가 많고 먹는다 해도 평균 12분 정도에 해결한다. 육체 노동이어서 80% 이상이 온몸 구석구석 통증을 달고 살지만, 정작 산재보험은 15%만이 가입된 상태이다.

일반 국민도 이들의 힘들음을 이해하고 있는데, 55%가 ‘택배기사처럼 힘든 직업은 없는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78%는 ‘코로나 사태에도 제품을 제 때 받을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65호는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택배 노동자’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 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택배 노동자 노동 시간, 주 6일, 하루 평균 12시간 노동(주 평균 71시간)

- 전국의 택배 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택배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택배 노동자의 주 평균 노동 시간은 71시간,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반 근로자의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인 52시간의 1.4배나 더 많은 시간임

[그림] 노동 시간(주 평균 vs 하루 평균)

주 6일 근무/ 주당 노동 시간



하루 평균 노동



*자료 출처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2020.09.10. (전국 택배 노동자, 821명, 전국 조직망 통해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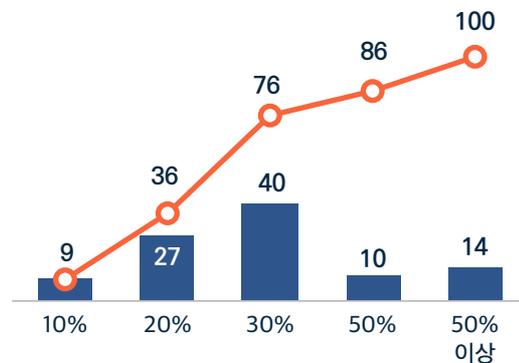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시간 '늘었다' 91%

- 코로나19로 인해 노동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91%로,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의 노동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평균 30% 내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시간 증감 (%)



[그림] 노동 시간 증가율(노동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자)** (%)



*자료 출처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2020.09.10. (전국 택배 노동자, 821명, 전국 조직망 통해 설문조사)

**Note : 원 자료는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노동 시간 증가율을 제시했는데, 본 보고서는 노동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노동 시간 증가율을 재 계산 하였음

● 택배 노동자 처리량, ‘2분 50초마다 1개꼴!’

- 전체 택배 물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3.2억 개, 2018년 25.4억 개, 2019년 27.9억 개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9.5~9.8%의 증가세를 보인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2.5억 개(추정치)로 전년 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도 연간 총 택배 물량이 14.1억 개였는데 2020년 32.5억 개를 가정하면 8년 사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택배노동자의 하루 처리물량을 살펴보면, 2020년 255개로 하루 12시간 노동 기준 2분 50초마다 1개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연간 택배 물량 추이*

(개)

[그림] 1인당 일평균 처리물량(연도별)**



*자료 출처 : 한국통합물류협회(연간발표)

** 자료출처 : 통일경제뉴스, “추석택배물량 최대폭 증가, 2020년 6월 전년대비 36.3% 급증,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의원실(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 생활물류 택배물동량’ 자료 재구성) (<https://www.tongil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24>)

** 2020년 추정치 : 강준현의원실 분석자료 중 2020년 6월까지의 총물량을 1년치로 환산하여 추정함

● 점심식사 시간 ‘12분’

- 이처럼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점심식사를 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식사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26%로 4명 1명 꼴로 나타났고, 식사를 하는 경우는 평균 12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빵이나 김밥 등을 차에서 먹는 경우’(22%)와 ‘식당에서 식사(22%)’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고, ‘끼니를 거를 때가 많다’는 응답도 37%나 됨

[그림] 점심식사 시간

[그림] 업무 중 식사 해결 방법(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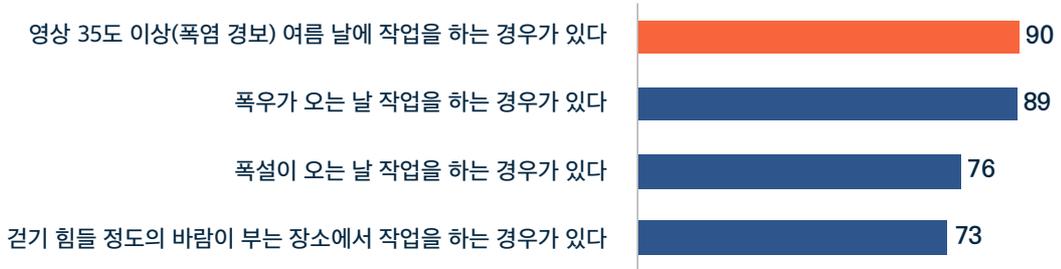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2020.09.10. (전국 택배 노동자, 821명, 전국 조직당 통해 설문조사)



●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 법에 금지한 악천후 시에도 노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사업주는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는 악천후 시에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악천후 시 업무 경험 (매우+약간 자주 있다) (%)



*자료 출처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2020.09.10. (전국 택배 노동자, 821명, 전국 조직망 통해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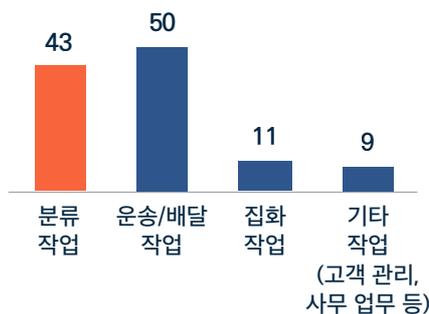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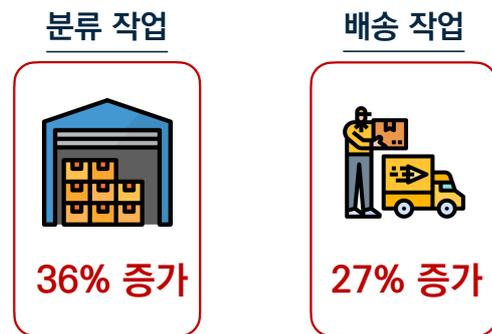
택배 노동자, 소득 보장 안 되는 분류 작업 증가에 큰 어려움 겪어

- 택배노동자 업무는 분류 작업과 배송 작업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는데, 배송 작업과 달리 분류 작업은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분류 작업이 36%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택배 노동자의 분류 작업은 배송 작업 증가율 27%보다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작업 중에서 가장 많은 43%를 차지하고 있어, 분류 작업이 더 가중되는 어려움에 놓여 있음

[그림] 택배노동자 세부 작업별 구성비 (%)



[그림] 작업별 증가율(코로나 이전 대비)



*자료 출처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2020.09.10. (전국 택배 노동자, 821명, 전국 조직망 통해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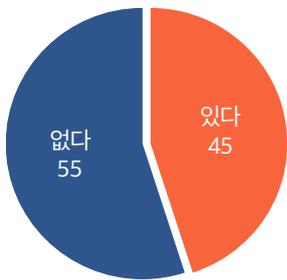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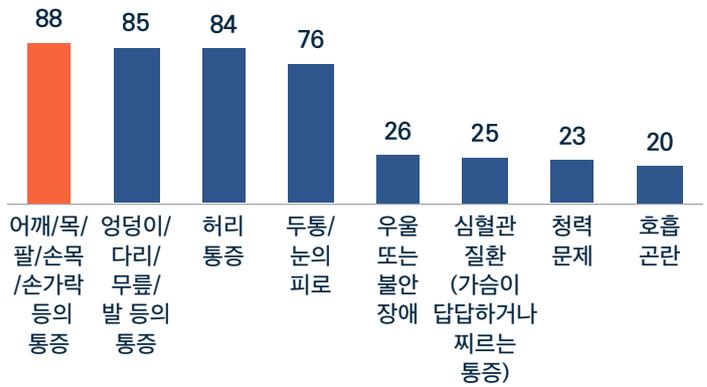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 '허리/어깨/손발/무릎 등 통증'에 시달려

- 2019년 한 해 동안 업무로 인한 사고(교통사고, 부딪힘, 넘어짐 등)로 병원, 한의원, 약국 치료를 받은 적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절반 가까이(45%)가 치료를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함
- 지난 1년간 겪은 건강상의 문제로는 '어깨/목/팔/손목/손가락 등의 통증' 88%, '엉덩이/다리/무릎/발 등의 통증' 85%, '허리 통증' 84% 등이 응답돼,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 몸 곳곳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그림] 2019년 한 해 동안 업무로 인한 사고 때문에 치료 받은 경험 (%)



[그림] 지난 1년간 겪은 건강상 문제(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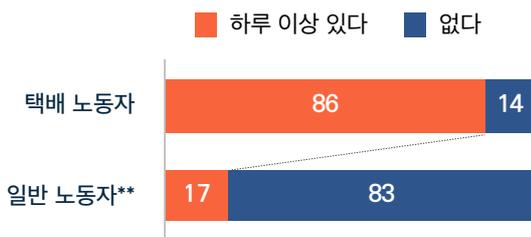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2020.09.10. (전국 택배 노동자, 821명, 전국 조직망 통해 설문조사)



아파서 결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한 날, 택배 노동자 26일, 일반 노동자 3일

- 2019년 한 해 동안 아파서 결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한 날을 질문한 결과, 86%가 하루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런 날이 연간 평균 26일로 조사됨
- 이는 일반 노동자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17년 고용노동부의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의 경우 아파서 결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한 날에 대해 17%가 하루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연 평균 3일로 조사됨

[그림] 지난 1년간 아파서 결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한 날 여부 (%)



[그림] 지난 1년간 아파서 결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한 날 수(연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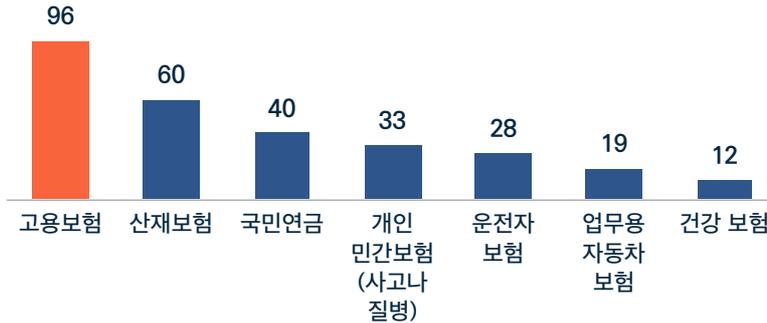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2020.09.10. (전국 택배 노동자, 821명, 전국 조직망 통해 설문조사)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년 근로환경조사' (3년 단위, 5만 여명 노동자 조사)

● 산재보험 미가입률 60%, 국민연금 미가입률 40%

- 미래 또는 위험 대비 보험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의 경우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은(96%)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은 60%, 국민연금은 40%가 각각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택배노동자 5만여 명 중 15%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노조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미래 또는 위험 대비 보험 미가입 현황 (%)



*자료 출처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2020.09.10. (전국 택배 노동자, 821명, 전국 조직망 통해 설문조사)

4



월 평균 소득, 235만 원, 실제 노동 시간 기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준! (주 71시간 근무 시 최저 임금 기준은 274만 원임)

- 택배노동자의 월 평균 순소득을 살펴보기 위해, 월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빼면 235만 원으로 나타남
- 이는 주 71시간 노동의 댓가이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택배노동자의 월소득을 산정하면 274만 원이 됨. 따라서 현재 택배 노동자가 받는 보상은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최저임금 : 주당 40시간 기준 월 157만 원)

[표] 택배노동자 월 평균 매출과 지출

구분	내용	금액
매출(a)	월 평균 매출(세후)	459만 원
	배송 수수료(개당)	782원
	대리점 관리 수수료	67만 원
비용(b)	택배차량 구입 관련 월할 비용(1톤 탑차 기준 연평균 감가 삼각 330만 원)	68만 원
	차량 관리(보험료 포함)	45만 원
	물품 사고(파손, 분실 등)로 인한 지출	7만 원
	경비(운송장, 테이프, 식대, 기타) 지출	25만 원
	택배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폰 관련 비용(구입비, 요금, 운수대통사용료)	12만 원
수익(a-b)	235만 원	

*자료 출처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2020.09.10. (전국 택배 노동자, 821명, 전국 조직망 통해 설문조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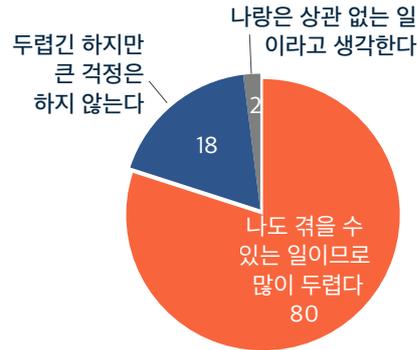
과로사, ‘나도 겪을 수 있어 많이 두렵다’ 80%

-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 7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는데, 이와 관련,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80%)는 자신도 겪을 수 있는 일임으로 ‘두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택배 노동자 과로사



[그림] 과로사에 대한 인식 (%)



*자료 출처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2020.09.10. (전국 택배 노동자, 821명, 전국 조직망 통해 설문조사)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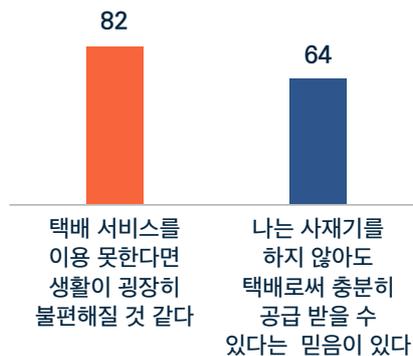
일반 국민, 최근 3개월 택배 이용 ‘늘었다’ 56%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택배 이용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변화 없다’ 34%, ‘이전 대비 증가’ 56%, ‘이전 대비 감소’ 5%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최근 3개월간 이전 대비 택배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함
- 택배 서비스와 관련 우리 국민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 못한다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다’ 82%, ‘나는 사재기를 하지 않아도 택배로써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64%로 응답해, 택배 서비스가 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제때에 배송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최근 3개월간 택배 이용 변화 (3개월 내 택배 수령 경험자) (%)



[그림] 택배 서비스에 대한 인식



*자료 출처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택배서비스 이용 및 택배기사 처우 관련 인식조사' 2020.05.27.(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2020.04.13.~04.17)

● 일반 국민, '택배 기사처럼 힘든 직업은 없는 것 같다' 55%
 '제품 제때 받게 되어 택배 기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78%
 '코로나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택배 시스템 덕분이다' 73%

- 국민들의 절반 이상(55%)은 택배 기사가 매우 힘든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물건을 제때 배달해준 택배 기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78%), 코로나를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역시 필요 물건을 빠르게 배송해 주는 택배 시스템 덕분(73%)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음
- 이러한 택배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택배 기사의 과로를 걱정하고(76%), 한편으로 택배 기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76%)에 대한 공감대가 높음

[그림] 택배 서비스에 대한 느낌



[그림] 택배 기사에 대한 인식



*자료 출처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택배서비스 이용 및 택배기사 처우 관련 인식조사' 2020.05.27.(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2020.04.13.-04.17)



시사점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은 멈출 줄 모른다. 2019년 1월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10.7조 원이었는데 11월에는 12.8조 원으로 10개월 사이에 무려 1.1조 원이나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택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물건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온라인 쇼핑은 마비될 것이고, 유통이 마비되면 제조업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상품을 받아보는 편리함을 맛본 개인 생활은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택배는 우리 산업을 움직이게 하며 개인의 생활 편리성을 극대화해 주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택배 노동자의 노동 강도도 세졌다는 것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며(3쪽) 심지어 점심 식사를 12분에 해결하고 그나마 그 짧은 식사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5쪽).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7쪽) 과로사를 했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유가족들은 8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물량이 크게 늘면서 과로로 쓰러져 목숨을 잃은 택배노동자가 올해 공식적으로 7명'이라며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 노동자의 월 소득은 평균 235만 원 밖에 되지 않아 절대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노동 시간 대비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5쪽).

현대사회는 복잡한 사슬 관계에 있다.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과 기관이 개입되어 있다. 최종 소비자로서 내가 편하게 앉아서 원하는 물건을 받는 데에는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노동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편안함 뒤에는 누군가의 땀과 한숨이 있다.

누군가가 노동을 제공하면 그에 합당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 또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노동 조건과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성' 때문에 합당한 노동 조건과 환경을 보장받기 쉽지 않다. 택배 노동자의 환경이 안쓰럽다고 해서 소비자 개인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우리는 서로가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힘들어 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 주변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적어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해하고 참아 주며 응원하는 것도 공동체를 위해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때로는 이 사회의 약자를 위한 사회 운동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사회 공동체를 위한 좋은 참여 활동이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사회적 약자보호'를 가장 주된 역할로 요구하고 있다.(넘버즈 61호 4쪽) 최근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교회의 본연적 역할, 택배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와 묵묵히 함께 하는 모습!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그래도 한국교회에 기대하는 바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2.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3. 서울 시민, '올해 추석 이동 계획 없다!' 73%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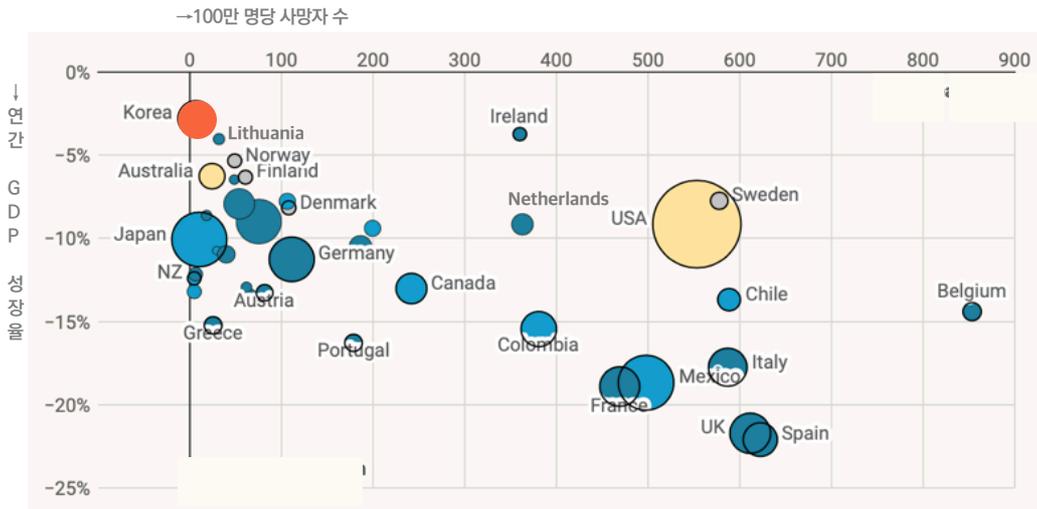
1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최근 OECD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경제 성장률과 10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GDP 성장률에 있어 2/4분기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로 나타나 OECD 주요 국가 1위에 위치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에 있어서 100만 명 6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경제 성장률과 코로나19 사망자 수(단위 : 연간 GDP 성장률, 백 만명 당 사망자 수)



*자료 출처 : OECD, 'Which countries have protected both health and the economy in the pandemic?' 2020.09.01., The Guardian, 'Regardless of Covid Restrictions, if people are dying in large numbers your economy is stuffed', 2020.9.12.
**Note : 그래프 원의 크기는 국가 인구수 시각화한 것임

● OECD의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 2020년 : -4.5%

- OECD가 'OECD 경제 전망, 2020 9월 중간리포트'(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0)를 통해 세계 경제 전망을 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2020 전 세계 실질 GDP 성장률 평균은 -4.5% 하락할 것으로 예측함
- 한국은 6월 당시 -1.0%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해 OECD 국가 중 1위에 위치함

[그림] 주요 국가 실질 GDP 성장률 (%)

구분	2019	2020년(예측)
세계	2.6	-4.5
G20	2.9	-5.7
한국	2.0	-1.0
미국	2.2	-3.8
일본	0.7	-5.8
독일	0.6	-5.4
중국	6.1	1.8

*자료 출처 : OECD, 'Which countries have protected both health and the economy in the pandemic?' 2020.09.01.

2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라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직접적 매출 규모로는 2,457억 원으로 추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 식료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 증가로 3,717억 원으로 추산해 총 6,174억 원의 직접 효과 또는 수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함
- BTS와 관련 연관 산업 경제적 유발 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1조 2,324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801억 원으로 약 1조 7천 억원의 연관 산업 유발 효과가 있으며, 고용 유발 효과는 7,928명으로 예상함

[그림] 방탄 소년단 빌보드 1위 경제적 효과

(%)

직접 효과 및 수출 증가	6,174억 원
생산 유발 효과	1조 2,324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801억 원
고용 유발 효과	7,928명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경제적 효과 1조 7천억 원", 2020.09.0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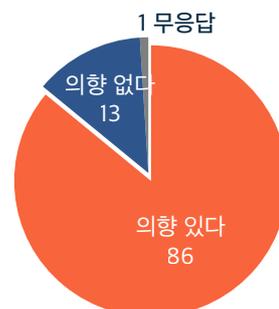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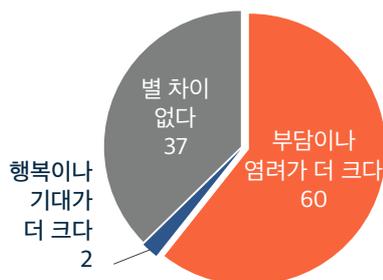


우리 국민 추석에 대한 행복감/기대감, ‘부담/염려 더 큼’ 60% > ‘행복감/기대감 더 큼’ 2%

-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추석을 맞이하는 행복감이나 기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담이나 염려가 더 크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난 반면, ‘행복감이나 기대가 더 크다’는 응답은 2%에 불과함
- 정부의 비대면 추석 권고에 대해서는 참여 의향을 밝힌 국민이 86%로, 대부분 동참할 것으로 나타남

[그림] 지난해와 비교한 추석에 대한 행복감/기대감 (%)

[그림] 정부의 '비대면 추석 권고' 참여 의향 (%)



*자료 출처: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6호(2020년 9월 3주)', 2020.09.20.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전화 면접, 2020.09.17.-1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
로
나
1
9

[10명 중 4명 '코로나 블루'...2020년 한국인의 우울](#)

경향신문_2020.09.19.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287.5억...미신청 2516억 자동기부](#)

동아일보_2020.09.22.

[교사 79%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 확대"...학부모 절반 "불만족"](#)

연합뉴스_2020.09.21.

[코로나 사태 언제 끝나나...여행사 약 1천곳 문 닫았다](#)

연합뉴스_2020.09.23.

사
회
/
경
제

일
반

[지난해 치매 수진자 80만명 ... 10년 새 4배 늘어](#)

조선일보_2020.09.20.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나이는 몇살일까](#)

한겨레_2020.09.23.

[10년간 고소득자 7천760명이 무려 10조 소득탈루](#)

연합뉴스_2020.09.20.

[최근 3년간 서울 6억이하 아파트 비중 67%→29%](#)

동아일보_2020.09.22.

기
후

[기후변화 계속되면 2050년에는 일부 댐·하천 제방 4년에](#)

경향신문_2020.09.20.

[코로나와 기후재앙 피하려면 'CO₂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중앙일보_2020.09.22.

큐
레
이
션

[습관은 공간에 밴다](#)

중앙일보_2020.09.22.

[매체가 만든 왜곡된 고아 모습...“남들도 저를 그렇게 볼까요?”](#)

경향신문_2020.09.21.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3-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59-64호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과천제일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현,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